달리던 시내버스 또 화재…바뀐것 없는 1년

산수동 도로서 74번 엔진룸서 불
지난해 개선 요구한 현대차 모델
광주시내버스 2대중 1대 같은 차종
"광주시 근본적인 해결책 찾아야"

지난 4일 오후 6시께 광주시 동구 산수동에서 승객 20여명을 태우고 달리던 시내버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재빠른 대피로 인명피해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광주시와 시내버스 운송사 측이 엔진룸 터보장치 결함을 주장해온 차종에서 화재가 일어났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광주 동부소방서 제공〉

광주 시내버스 2대 중 1대는 엔진룸 주요 부품에서 비롯된 화재 위험을 안고 달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버스 엔진룸을 구성하는 터보장치 결함으로 여겨지는 고장으로 1000도에 이르는 뜨거운 오일이 고무나 플라스틱 소재로 된 부품으로 흘러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주장으로, 광주시가 시민 안전을 위해서라도 제작사인 현대자동차에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해 7월 광산구에서 주행 중 화재가 발생한 시내버스(현대차 유로 5 차종)와 유사한 형태의 엔진룸을 가진 중형 시내버스가 지난 4일 승객을 싣고 달리던 중 또 엔진룸에서 화재가 났다는 점에서 시정 요구에 더욱 힘이 실린다. 이번 화재의 원인 역시 버스 엔진룸 터보장치 파손에 따른 오일누출로 추정된다.

◇지난해 현대차에 시정요구한 차종 또 화재=지난 4일 오후 6시께 광주시 동구 산수동을 달리던 74번 중형 시내버스(현대차 '글로벌 900'차종·08년식) 엔진룸에서 불이 났다. 당시 버스에는 20여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지만 운전원의 긴급대피 조치로 다행히 인명 피해로 연결되지는 않았다.

문제는 이번에 주행 중 화재가 난 시내버스가 지난해 광주시 측이 제작사인 현대차 측에 시정을 요구한 버스 중 하나라는 것이다. 광주시는 지난해 7월 19일 광산구 목련마을 앞을 달리던 34번 버스(현대차 '유로 5'차종) 화재 사건을 계기로, 시내버스 회사 정비인력과 함께 원인 분석에 매달렸다. 그 결과 현대차 대형 버스인 '유로 5' 차종과 중형 버스인 '글로벌 900' 엔진룸에 문제가 있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크기만 달랐지 엔진룸이 사실상 동일한 두 차종의 버스 터보장치가 파손되면서 그 틈새로 고온의 오일이 흘러나와 엔진룸 화재를 불러왔다고 판단한 것이다.〈광주일보 2015년 8월 12일자 1면〉

이를 바탕으로 광주시는 제작사인 현대차 측에 터보장치 문제에 따른 엔진룸 화재를 막을 수 있는 조치를 공식 요구했다. 당시 현대차도 제작 결함은 인정하기 힘들지만 버스 화재가 발생한데다 광주시 주장이 무리한 요구는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터보장치와 고무소재 사이를 격리하는 철로 된 판을 설치해줬다는 게 광주시 설명이다. 이런 상황에서 또 다시 엔진룸 터보장치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은 현대차 시내버스가 주행 중 불이 난 것이다.

◇이번에도 '엔진룸 터보장치'가 문제 지적=7일 화재가 난 버스를 가져와 화재 원인을 분석한 버스회사 측은 "엔진룸 터보장치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내놨다. 광주시 역시 '운송사 측 유지보수 부실보다는 제작사 측 설계 부실 내지는 제작결함'에 무게를 싣고 있다.

그 원인으로는 엔진룸 전체가 불에 탄 상황에서도 터보장치를 구성하는 나무젓가락 크기의 지주대가 파손된 흔적을 정비인력이 발견했기 때문이다. 엔진 출력을 높여주는 터보장치 내 지주대 파손→터보장치 균열→고온의 엔진오일 누유→플라스틱·고무소재에서 화재 발생으로 연결되는 연결고리가 어느 정도 확인된 것이다.

시내버스 정비업체의 한 관계자는 "현대차가 제작한 유로 5, 글로벌 900 시내버스 모두 터보장치 내 지주대가 하나는 알루미늄, 다른 하나는 철 소재로 돼 있는데 꼭 고장 난 터보장치를 보면 알루미늄 지주대가 파손된 것이 확인된다. 이번에도 현재까지 그럴 개연성이 크다"면서 "지주대 하나가 부서지면 터보장치가 주저앉고 균열이 생겨 오일이 뿜어져 나오고 그래서 화재가 발생하는 것 아닌가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대차 관계자는 "광주시, 정비업체 관계자 주장과 달리 우리 쪽 AS인력들은 '원인 불명'이라고 보고해왔다"고 밝혔다.

광주시내버스는 총 1030여대로 광주시와 운송사 정비인력으로부터 엔진룸 터보장치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받는 2개 차종 버스는 551대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뜸 05:24 해짐 19:50 달뜸 07:08 달짐 21:06

열대야 잠 못드는 밤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가 오겠다.

◇지역별 날씨 (℃)

광 주	흐리고가끔비	24/28	보 성	차차흐려져비	23/28
목 포	차차흐려져비	23/27	순 천	차차흐려져비	24/29
여 수	차차흐려져비	23/27	영 광	흐리고가끔비	24/28
나 주	흐리고가끔비	23/28	진 도	차차흐려져비	24/28
완 도	차차흐려져비	23/29	전 주	흐리고가끔비	23/28
구 례	흐리고가끔비	24/30	군 산	흐리고가끔비	23/27
강 진	차차흐려져비	24/28	남 원	흐리고가끔비	23/28
해 남	차차흐려져비	24/29	흑산도	차차흐려져비	20/24
장 성	흐리고가끔비	23/28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남부	앞바다	남~남서	0.5~1.0	남동~남	0.5~1.0
	먼바다	남~남서	0.5~1.5	남동~남	0.5~1.5
남해서부	앞바다	남~남서	0.5~1.0	남동~남	0.5~1.0
	먼바다(동)	남~남서	0.5~1.5	남동~남	0.5~1.5
	먼바다(서)	남동~남	0.5~1.5	남동~남	0.5~1.5

◇물때

	밀물	썰물
목포	03:33	08:42
	15:32	20:45
여수	10:18	04:10
	22:49	16:16

◇생활지수

식중독	경고
자외선	보통
미세먼지	보통

◇주간 날씨

7(목)	8(금)	9(토)	10(일)	11(월)	12(화)	13(수)
24/30	22/29	23/28	23/29	22/30	23/30	23/30

챔피언스필드 주변 불법 주차 안봐준다

다음달까지 CCTV 4대 설치

KIA타이거즈의 홈경기가 열리는 날이면 불법주정차로 몸살을 앓고 있는 광주-KIA챔피언스필드 주변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가 설치된다.

5일 광주 북구청에 따르면 모두 1억60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이달 말부터 다음달 중순 사이 북구 임동 광주-KIA챔피언스필드 주변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4대를 설치할 예정이다.

북구는 최근 주민설명회를 열어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카메라가 설치되는 장소는 ▲한국아델리움2차 후문 맞은편(천변우로) ▲챔피언스필드 후문 앞(서림로) ▲무등경기장사거리(서림로) ▲임동주공아파트 입구 삼거리(무등로) 등이다.

북구는 카메라 설치가 마무리되면 계도 기간을 거친 뒤 단속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 3개 구간에 설치되는 카메라는 홈경기가 열리는 날에만 2시간 가량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더위에 잠못드는 밤 시작

열대야 전년보다 20일 일찍 발생…당분간 지속될 듯

광주·전남지역에 올 들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광주의 경우 지난해보다 20일 일찍 열대야가 나타났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당분간 열대야 현상이 지속 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광주·전남 일부 지역에서 지난 4일 밤부터 5일 오전까지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을 기록하는 열대야가 나타났다.

주요 지점별 최저기온은 무안 26.1도, 영광 25.8도, 광주 25.7도, 함평 25.4도, 목포·영암 25도 등이다. 광주의 열대야는 지난해(7월24일)보다 20일, 최근 10년(2006~2015년) 평균(7월12일)보다 8일 빠른 것이다.

광주, 목포, 여수, 완도, 장흥, 해남, 고흥 등 광주·전남 주요 지점의 최근 10년 평균 열대야 첫 발생일은 7월 12~20일께, 마지막 발생일은 8월 18~22일께로 분석됐다.

기상청은 장마전선이 중부지방으로 북상하면서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고온다습한 남서풍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밤 사이 많이 낀 구름이 복사냉각을 막으면서 열대야가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벌써…"

전남 해역 독성 해파리 조심

노무라입깃해파리 확인…전년보다 10일 빨라

해파리류 가운데 가장 덩치가 크고 독성을 가진 노무라입깃해파리가 지난해보다 10일 이상 일찍 전남 해역에 나타났다.

국립수산과학원은 6월 한달간 남해와 서해 먼바다에서 모니터링한 결과 전남 남서부 해역과 제주 먼바다에서 노무라입깃해파리가 ha당 2~95마리 분포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5일 밝혔다.

6월 말 전남 해역에 나타난 노무라입깃해파리는 완도에서 남쪽으로 약 40km, 보길도에서 약 20km 떨어진 해역에 ha당 95마리에 이르는 높은 밀도로 분포했다.

6월 28일 보길도~완도 해역에서 2마리만 발견돼 아직 연안까지 들어온 개체는 적은 것으로 보이지만 남풍의 영향으로 일부 개체가 전남 남·서쪽해역과 경남 연안으로 유입될 것으로 수산과학원은 전망했다.

해파리는 이달 첫 주에 완도군 청산도와 여수시 거문도를 거쳐 둘째 주에 여수 전 해역으로, 셋째 주에는 경남 거제도 해역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파리떼 출현이 빠른 이유는 동중국해에서 우리나라 연안으로 해파리를 이송하는 대마난류가 지난해보다 강하게 형성된 때문이다. /이종행기자 golee@

"자궁경부암 예방 접종 선택권 줘야"

광주시교육청

광주시교육청은 자궁경부암 백신 예방 접종에 대해 '의무가 아닌 학부모의 선택'이라고 5일 밝혔다.

광주교육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이같이 밝히고 "일률적인 예방접종은 반대하며 학부모의 선택권은 철저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달 20일부터 매년 초등학교 6학년에게 무료로 자궁경부암 백신을 맞도록 하는 '건강 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을 추진 중이다.

2003~2004년 출생한 여성 청소년은 47만여명이며 광주는 1만2700여 명이 접종 대상이다.

광주시교육청은 자궁경부암 백신의 안정성에 대한 학부모들의 문의가 잇따르자 의학전문가의 의견을 모아 학부모의 선택에 따라 접종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예방접종은 가까운 보건소 등 172개 의료기관에서 맞을 수 있다. 접종 장소는 '예방접종 도우미' 홈페이지(http://nip.cdc.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